

# 가끔은 당당하게 외쳐보자, “난 소중한니까~!”

조주희 | 대광고등학교 교사

잘났든 못났든 '나는 나'다. '나'로 태어난 이상, 변할 수 없다. 얼굴 크다고 불평해도 얼굴은 결코 작아지지 않는다. 개나리로, 토끼는 토끼로 살아야 한다. 그게 우주만물의 법칙이다. 그러나! 잘났다, 못났다는 생각하기 마련이다. 못난 사람이 '나는 잘났다' 우겨도 상관없다. 물론 잘난 걸 잘났다고 밝히는 건 더더욱 상관없다. 겸손이 미덕이라지만 까짓 거 해될 게 무어란 말인가. 잘난 자신이 좋아서 기가 팍팍 살고, 즐겁게 살아간다면 해가 아니라 오히려 득이다. 맘껏 자신을 높여보자. 그것도 미덕이다.

그래서 좀 특별한 실험(?)을 해봤다. 실험 대상은 1학년 진만이다. 실험이라고 하지만 참 간단하다. 나머지 반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너 멋져!” “훌륭해!”라고 칭찬을 마구 하는 거다. 잊지 말라고 칠판 구석에 숙제 내용을 잘 보이게 써놓아 두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아이들은 장난처럼 여기는 눈치다. 그러나 실험의 목적은 꽤 진지하다. 남이 우기든 자신이 우기든 말이 씨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자, 진만이는 어찌될 것인가. 지금, 실험은 한창 진행중이다.

● 누가 뭐라 해도  
난 나를 믿어~!

실험대상인 진만이는 장학부장이다. 부장이 된 과정이 재밌다. “장학 부장 누가 할 거니?” 누군가 조용하게 진만이라고 했다. “그럼, 진만이가 한다.” “아니, 저, 저, 저~!” 진만이는 손을 내저었지만, 아이들은 박수를 쳤다. 그때 참 당황하더니, 지금은 잘한다. 간혹 숙제를 잊어서 집까지 다시 가야 하는 실수도 있지만, 노력하는 게 보인다. 보기 좋다. 어쨌든 저쨌든 자신은 자신이 만드는 거다.

빌 게이츠도 스스로를 만든 사람이다. 모두가 무시하던 컴퓨터에 평생을 건 혜안慧眼은 놀라울 정도다. 지금이야 누구나 컴퓨터라면 중요하다고 하지만, 빌 게이츠가 태어난 1955년엔 상황이 달랐다. 현재 그의 나이는 쉰 하나. 1967년 초등학교를 다닐 때 컴퓨터를 처음 접했다. 컴퓨터라 불렀지만 계산기만도 못했다. '1+1=?' 이라는 단순한 질문도 한참을 기다려야 나왔다. 게다가 모니터도 없어서 모든 결과물은 프린터로 달려가 봐야 했다. 그러니 누가 눈여겨 봤을까. 허나 빌 게이츠는 컴퓨터에서 미래를 봤다. 모두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말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미안한 말이지만, 빌 게이츠는 본받기엔 좀 야비(?)하다. 그 유명한 MS-DOS도 작은 회사가 만든 프로그램을 헐값에 사서 조금 변형한 거란다. 뿐인가. 인터넷이 도입될 무렵엔 “그거 누가 신경 쓰나!”라고 무시한 빌 게이츠다. 그러다가 ‘네비게이터Navigator’를 만든 중소기업 넷스케이프가 성공 가도를 달리자, 윈도98에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를 허겁지겁 끼워 팔기 시작한다. 결국 네비게이터 대신 익스플로러가 세계를 휘어잡는다. 결국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중소기업 넷스케이프를 누르고 부동의 1위를 지킨다. 그래서 그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독점이다’, ‘돈에 미쳤다’ 험한 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다. “사업이란 참 멋진 게임입니다. 만약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엄청난 재산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일을 선택할 것입니다.” (176쪽) 스스로 굽히지 않는 한, 결코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법이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여전히 대단하다.

● **꺾이지 않는**

**‘자존감’ 하나쯤 지니고 있기**

지호가 목을 다듬고 발표하기 시작했다. “제가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엄마가 ‘집 나가!’라고 할 때입니다.” 아이들도 조용히 듣는다. 아무렇지 않는 듯하지만 사이사이 지호는 얼굴이 붉게 변한다. 화난 어머니가 그냥 던진 말인데, 아이들은 잊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에 자신을 낮게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게 있다. 바로 ‘난 소중하다’는 자존감이다. 이건 누가 뭐래도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

죽음을 걸고, 누군가 ‘네가 틀렸다’라고 고백하라고 한다면? 백이면 백이 흔들린다. 그게 당연하다. 아무리 자신이 정당해도 죽음 앞에선 거짓 증언할 것만 같다. 근데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고, 예수가 그랬고, 잔 다르크가 그랬다. 그래서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를 읽을 땐, 주의해야 한다. 부당한 재판 과정을 읽다보면 분명 머리와 가슴이 아플 테니 말이다.

로젠버그 부부의 재판은 특히 더 괴롭다. 1949년, 미국 FBI는

소련이 원폭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입수한다. FBI는 소련이 원폭 기술이 없다고 판단한 채, 무조건 내부 첩자가 있을 것이라 몰고 간다. 한마디로 범인을 만드는 셈이다. 어이없는 과정 끝에 로젠버그 부부가 지목된다. 기가 막힌 건, 그 지목자가 바로 로젠버그 부인의 남동생이란 사실이다. 남동생은 정부의 추궁에 자신의 누나 부부를 걸고 들어간다. 한 명이라도 구하자며 합세한 친정 가족들도 로젠버그 부부를 공산주의자라고 몰아 부친다. 마녀 사냥인 셈이다. 그들은 결국 억울하게 처형된다.

얼마나 허망했을까. 그것도 가족이 ‘네가 잘못했어!’라며 몰아 부칠 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래,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픈 유혹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나 로젠버그 부인은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 “아무리 운명이 잔혹한 머리를 나에게 내밀더라도, 내 자신을 끈주 세울 것을 겸허히 다짐합니다. 결코 자신의 신념을 싼값에 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308쪽) 진리를 알게 된, 수백 명의 시민들이 그들 부부의 무죄를 요구하지만, 정치와 권력은 그들을 무참히 버린다. 그리고 5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재판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책은 차분히 기록한다.

갑자기 생뚱맞은 책의 제목이 궁금해진다. ‘내 목은 짧으니...’는 토마스 모어의 유언이다. 그의 죽음도 참 억울하다. 그 억울한 상황에서 사형집행관에게 던진 말치고는 전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비치지 않는다. 어떻게 그들은 끝까지 자신을 버리지 않았을까. ‘난 옳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의 자신감이 새삼 강하게 다가온다. 지호도 기억해야 한다. 한순간의 말 때문에 자신을 굽힐 필요가 없다는 것을. 누가 뭐라 하건 나는 소중하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 한다. 이 중요한 걸 자주 아이들은 잊어버린다. 그래서 가끔은 말해줘야 한다. “난 소중하니까!”라고 외쳐줘야 한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진만이의 얼굴이 실험 의도대로 정말 멋있어졌다. “오, 정말 변했는데?”라고 하니 진만인 웃어버린다. 웬지 감이 잡힌다. 요번 실험은 꽤 성공일 것만 같다.

● **이 글을 쓴 조주희 선생님은**

현재 대광고등학교 국어교사이며 문학반을 담당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고, 대학교와 대학원 시절 CBS 다큐멘터리 작가, 리포터, 〈여성동아〉 자유기고가로 활동한 바 있다.